

◇ 원발성 폐암의 수술후 5년이상 생존환자의 임상분석

김병일, 신성호, 반동규, 김혁, 정원상, 김영학, 강정호, 지행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실에서는 1988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원발성 폐암의 진단하에 개흉술을 시행받은 환자중 5년이상 생존환자에 대하여 임상분석을 보고하는바이다.

방법 : 1988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한양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원발성 폐암의 진단하에 개흉술을 시행받고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중 입원환자기록과 통원치료기록이 양호한 20례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성별 분포, 임상증상 및 빈도, 수술방법, 세포조직형 분류, 술전 및 술후 stage별 분류, 술후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에 따른 분류등을 관찰하였다.

결과 : 1)환자의 연령분포는 28세에서 67세였고, 평균연령은 47.9세였으며 남녀 성비는 1:1이었다. 2)객담검사상 양성을 보였던 환자는 3례였으며 3)조직학적 분류로는 편평 상피암과 선암이 각각 5례[25%]로 많았다. 4)술후 병기에 따른 분류로는 제1병기가 9례[45%], 제2병기가 6례[30%], 제3a병기가 5례[25%]였다. 5)수술수기로는 11례[55%]에서 전폐절제술을 시행하였고 9례[45%]에서 폐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6)술후 3례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7례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5례에서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았고 5례에서는 아무치료도 받지않았다.

결론 :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개흉술을 시행받은 모든 환자들의 자료를 비교할 때 평균연령은 더 낮았고 조직학적으로는 선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술후 병기도 병기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수술수기별로는 상대적으로 폐엽절제술을한 환자가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또한 수술후에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항암치로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생존율이 높은 것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있다.

책임저자:지행옥(한양대학교의과대학) 발표자:김병일(한양대학교의과대학)